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31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북도지사 3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친환경 스마트화 · 산업 혁신”

송하진 지사, 3선 출마 선언 “10대 광역경제권 진입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경제 일으키는 것이 과제”

송하진(69) 전북도지사가 3선 출마를 선언했다. 송 지사는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스마트화 산업혁신 혁명을 통해 ‘10대 광역경제권’에 진입하겠다”며 출마표를 던졌다.

송 지사는 먼저 “전북은 수려한 자연환경, 자랑스러운 역사, 빼어난 문화 등에도 산업 발전의 축에서 벗어나 뒷전에서 있었다”며 “전북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100년 미래먹거리 산업경제를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송 지사는 이어 “이제는 아날로그적 산업문명 시대에서 친환경 생태 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전북의 산업경제정책 방향을 ‘친환경 스마트화 로 저비용·고효율 경제체질 강화’, ‘전주기 밸류체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산업으로 혁신·혁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북의 총량적 경제

지표가 상당히 개선돼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 2020년 전국4위, 1인당 GRDP 증가율 전국2위, 수출증가율 전국4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산업의 혁신혁명을 가속화해 2026년까지 전북을 10대 광역경제권으로 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또 ▲코로나19 극복과 건강강한 일상회복,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 ▲생산업 위기 극복 및 전주·완주 통합도모, ▲계층간, 도농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 완화, ▲잔란 지방자치와 실질적 재정분권, ▲공공의료대확원과 금융중심지 지정 등 지역에 당면한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

아울러, 송 지사는 지난 민선 6~7기에 진행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와 새로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도 공약했다.

그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개항, 신항만 인입철도와 내부순환도로, 전주-김천간 철도 등 동서남북 사통팔

달 SOC 구축 산업 혁신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과 농공단지 대개조, 탄소와 수소특화 산업단지, 새만금 친환경생태단지, 세계잡거리와 아메바스터스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 개최도 약속했다.

송하진 지사는 도민을 향해 “도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 뿌린 씨앗을 제대로 거두는 ‘완성의 미’를 이루는 것이다”며 “일이관지(一貫之)의 자세로 다시한번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송 지사는 고품에 3선 출마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올해 단으로 69세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74세에 대통령이 됐다”며 “준중반이아 할 경륜을 가볍게 보는 것도 위험한 사고”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북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송 지사를 비롯해 김윤덕·안호영 국회의원, 김관영·유성엽 전 국회의원, 김재선 노무현 대통령 정신계승연대 전북 대표가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호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민주 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이 6·1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첫 회의를 31일 진행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준병 공관위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첫 회의에선 공관위 구성 및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당간 경쟁이 약한 전북에서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공관위를 통해 과감한 혁신 공천으로 역량 있는 신인 발굴과 다양한 분들의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실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북 도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들어 변화를 선도하는 공관위가 돼줄 것”을 주문했다.

윤준병 공관위원장은 “도민들의 관심 속에 시작한 공관위가 하는 결정이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기 때문에 전북의 미래 4년을 내다보고 전북과 각 시군을 이끌 인재들을 잘 추천해서 전북의 도덕성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 18명으로(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6명) 구성된 공관위는 공직선거후보자 공모 공고(4월1일 ~ 7일까지) 발급 처리기간에 따른 추가 제출은 10일까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예정이며, 후보자등록 심사에는 만 29세 이하는 면제, 만 30세~만 39세, 중증장애인은 50% 감액을 결정했다.

또한,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 제4항에 의거,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명, 성별, 주요경력, 범죄경력, 재산상황 등 필요한 항목을 정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유호상 기자

지방선거 D-60, 지자체장 등의 행사 개최 · 후원 금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인·특정시기와 아니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위·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처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가)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가능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누구든지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유호상 기자

국힘 도당 공천관리위, 지선 후보 공모 시작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은 지난달 31일 제1차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 일정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는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일간 공모 후,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공모대상은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일정을 마치고 후보자들에게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광역시급 예산 확보, 지역소멸 위기 돌파”

안호영 의원, “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 이미 준비돼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호 공약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구상안을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로 지정, 광역시급 예산으로 향후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구해내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미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준비돼 있고, 곧 발의할 것”이라며 “정치력으로 국회 통과를 얻어낼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전북은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시급 예산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불어난 재정으로 전북과 전주를 하나로 연결하는 교통물류체계를 만들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중앙정부 지원 예산으로 총 795km에 달하는 도로망을 구축해 전북 14개 시·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엮어내고, 철도와 고속도로를 신설해 전국적인 교통물류관광 인프라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전북지역 도로망 계획을 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면, 전주가 가까운 익산과 김제, 정읍, 임실, 진안, 완주에 이르는 내부순환선(172km)은 중심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내부순환선에는 급행버스(BRT)를 도입,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전북의 동서를 잇는 3개 도로망과 남북을 잇는 1개 도로망이 합쳐져 전북 내부가 그물망처럼 촘촘히 연결된다. /유호상 기자

동서를 잇는 3개 도로망 가운데 ▲동서 1선은 완주와 전주, 김제, 부안 간 52km이며, ▲동서 2선은 무주와 진안, 전주, 익산, 군산을 잇는 134km, ▲동서 3선은 무주와 장수, 남원, 순창, 정읍, 고창 간 321km다.

여기에도 남원과 임실, 전주, 완주, 익산 간 115km의 남북선이 추가되면, 전북이 동서남북 사통팔달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철도와 고속도로 연결망을 통해 전북과 외부, 전북과 전국을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 구상도 내놨다.

고속도로의 경우,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를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신설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익산을 연결한다.

철도의 경우에는 ▲전주, 진안, 무주, 김천 간 동서횡단철도 ▲남원~장수까지를 포함하는 달빛내륙철도 ▲군산에서 부안, 고창, 목포로 이어지는 서해안철도, ▲대전에서 완주, 정주로 이어지는 복선전철 신설을 통해 외부와 연결할 계획이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 어디에 살든 전북과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져 교통, 물류, 관광 인프라가 갖춰지면 물론, 전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를 전북성장의 컨트롤 타워로”

김윤덕 의원 “4대 대규모 개발로 전북경제 대전환”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윤덕(전주 김) 국회의원은 전주시를 “4대 개발 추진으로 전북 경제의 대전환을 이끄는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주 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감한 도전과 과감한 혁신만이 멈춰있는 전주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다”며, “전북 경제의 대전환을 전주시의 대변어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전주 4대 개발(전주시청 복합개발, 명품전주역세권 개발, 대한방직 터 개발, 이종호수 관광 개발) ▲무인항공 혁신 산단 조성 ▲친환경 관광 트램 도시 조성 ▲옛 기무부대 부지 문화복합공원 조성 ▲영화특별시 조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방치된 옛 대한방직 터를 보면 혁신과 변화는 공간을 조성하고, 명품역세권 개발을 통해 주거와 안침의 일지리를 창출하고 이종호수는 수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를 하고 지역발전이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청은 현 위치에 명품 복합개발을 통해 시민과 행정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명품역세권 개발을 통해 주거와 안침의 일지리를 창출하고 이종호수는 수변

특화형 리조트 관광 개발을 통해 한옥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새로운 전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의원은 “드론 선도 도시 전주시를 무인항공체 혁신 산단 조성, 드론 비행실증단지, 기업 지원 시설은 물론 지역·교육까지 이어지는 드론 종합 인프라 구축을 통해 ‘드론 혁신도시’로 도약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주의 대표관광지인 한옥마을 내에 전국 최초의 친환경 관광트램을 도입해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전주시 예코시티 옛 기무부대 부지에 역사와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갤러리, 어린이 놀이 시설, 야외무대, 휴게 공간 등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백석저수지를 친환경,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버추얼 스튜디오와 특성화 세트장 등 영화촬영 시설을 집중화해 통해 ‘영화특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

“노을대교, 고창발전의 대전환”

심덕섭 고창군수 예비후보 지역발전 5대 아젠다 등 발표

더불어민주당 심덕섭(59·전 국가보훈처 차장) 고창군수 예비후보가 고창 발전을 위한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심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오전 고창을 선거사무소에서 정책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젊고 유능한 경제일꾼’으로서 활력 넘치는 더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한 5대 아젠다와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심덕섭 예비후보는 먼저 “이번 고창군수 선거 캠페인의 청사진을 활력 넘치는 더 좋은 고창으로 또, 후보자에 대한 특성을 젊고 유능한 경제일꾼”으로 표현했다”며 “이는 32년 공직 생활 동안 보여준 능력과 다른 후보자보다 젊고 참신한 생각을 기반으로 고창의 경제를 살리고 고창을 발전시키는 젊고 유능한 경제일꾼이 되겠다는 의미이다”고 말했다.

심 예비후보는 더 좋은 고창 5대 아젠다로 ▲노을대교, 고창발전의 대



전환, ▲편안한 농업, 고루 잘사는 농어촌, ▲꿈과 희망 청년이 돌아오는 고창, ▲인구 소멸을 막는 주거뉴딜, 명품 주거환경 조성, ▲활력 넘치는 더 큰 고창을 제시했다. 더 좋은 고창 만들기 5대 전략으로는 ▲편가르기 없는 정치, 갈등 없이 화합하는 더 좋은 고창, ▲고루 잘사는 부자 농어촌, ▲더 좋은 고창,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활력 넘치는 경제 더 좋은 고창, ▲천혜의 환경, 누리고 즐기는 세계유산관광 1번지 더 좋은 고창, ▲아름다운 동행 안전하고 행복한 더 좋은 고창 등이 있다. /유호상 기자

고창 출신 민주안구백 의원 이돈승 예비후보 후원회장 맡아

전북 고창 출신인 4선 안구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이 이돈승 완주군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이돈승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20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안구백 의원이 후원회장직을 흔쾌히 수락하셨다”며 “대한민국 정치의 큰 어른이 뒤를 바쳐 주는 만큼, ‘오름 자족도시, 건강한 안주’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이돈승 후보 후원회장 위촉은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주 초 정식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이돈승 예비후보는 오는 4월 2일 오후 2시부터 봉동읍에 마련된 사무실(봉동읍 봉동로 160) 2층에서 선거사무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